

KIA 김도현 ‘이닝 이터’ 꿈꾼다



시즌 첫 7이닝 소화... ‘토종 에이스’ 순조
“자신감 생겼다...빠른 승부로 이닝 책임”
오늘 안방에서 삼성전 등판...설욕 다짐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김도현이 또 다른 ‘7회’를 노린다.

KIA 타이거즈의 김도현은 지난 5일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98개의 공으로 21개의 아웃을 잡아냈다. 김도현의 성적은 7이닝 5피안타 2볼넷 7탈삼진 1실점.

시즌 처음으로 7회까지 소화했지만 아쉽게 시즌 3승에는 실패했다. 이날 KIA는 11회 연장 승부 끝에 2-3 패를 기록했다.

승리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김도현은 선발 역할을 해냈다는 생각에 잠을 못 이뤘다.

김도현은 “7이닝을 소화했다는 생각에 너무 좋았다. 뭔가 ‘됐다’는 느낌에 잠을 못 이뤘다. 행복했다”며 “밥 먹듯이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걸로 감동하면 안 되지만 많이 좋았다”고 웃었다.

‘최소실점’으로 팀 승리에 기여하자고 생각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김도현은 “처음에는 일단 최소 실점으로 막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어느 순간 6이닝이 됐다. 마지막 이닝 때 코치님이 100구 안 넘긴다고 하셨는데, 투아웃 잡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다”며 “7회 올라갈 때 투구수를 봤었는데 거의 100구에 도달해 있었다. 혼자 바보짓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맞을 때 맞더라도 과감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빨리 빨리 승부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도현은 7회 12개의 공으로 탈삼진 2개를 더한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승리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김도현은 앞으로는 승리보다는 이닝에 초점을 맞춰 역할을 할 생각이다. 올 시즌 꾸준하게 이닝을 책임지면서 토종 에이스로 역할을 하고 있는 김도현은 지난 5월 24일 삼성전에서 5회 2아웃에서 강판되면서 처음 5이닝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5월 30일 KT전에서 다시 5회를 책임졌고, 앞선 등판에서는 7회까지 마무리했다.

김도현은 “처음으로 5이닝 이상 못 던진 날에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전까지도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다음에 5이닝 던지고 운 좋게 7이닝까지 던져보니까 자신감이 생겼다”며 “승리까지 했으면 완벽한 하루였겠지만 그런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승리에 연연하지 않고 내 것, 할 것 준비하면 될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선발로 이닝을 채워가는 올 시즌이 스스로 신기한 김도현이다. ‘끝까지 간다’라는 말이 이닝을 책임지게 하는 힘이다.

김도현은 “나도 가끔 신기하다. 내가 계속 5회를 던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운드 한번, 한 번 올라가면 신기하다”며 “코치님께 ‘수고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 더 가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즐겁다. 최근 안 좋았을 때 100개 가까이 던졌는데 써주셨다. 원래는 ‘고생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끝까지 간다’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 말에 책임감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무게가 있다. 믿어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서 편안하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책임감 속에 ‘빠른 승부’로 김도현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김도현은 “한 구종에만 의존하지 않고 골고루 분배하고 있다. 똑같은 구종을 쓰다 보면 상대도 알게 되니까 배분하려고 한다. 포수들도 많이 도와주니까 믿고 던지니까 좋은 결과 나온다”며 “마운드에서 생각이 많아지면 타자가 아니라 나랑 싸우게 된다. 생각을 줄이기 위해 빨리 빨리 승부하려고 한다. 아웃 카운트를 잡으려면 배트가 나오게 해야 한다. 빠른 승부하면서 이닝에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선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올 시즌 가장 좋지 못한 성적표를 작성했던 김도현은 11일 안방에서 설욕전을 펼친다. 김도현은 이날 시즌 13번째 등판에 나서 삼성을 상대한다. /김여울 기자 wool@



지난 5일 두산과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첫 7이닝을 소화한 KIA 김도현이 11일 삼성전에서 이닝과 승리를 동시에 노린다.

〈KIA 타이거즈 제공〉

“꾸준함으로 얻은 기록, 더 값지다”



KIA 최형우 ‘월간 MVP’ 수상...6회 ‘최다’

‘41세 5개월 24일’ 최고령 기록도 갈아치워

“한 달 동안 꾸준히 출장하며 쌓은 기록이라 더 값지다.”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사진)가 5월 월간 MVP 선정 소감을 밝혔다. 최형우는 지난 9일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5월 월간 MVP로 선정됐다.

최형우는 나이를 잊은 꾸준한 활약을 바탕으로 2017년 5월 이후 8년 만에 월간 MVP 수상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최다 수상 기록도 최고령 기록도 갈아치웠다.

앞서 양현종(KIA), 박병호(삼성)과 나란히 5차례 월간 MVP에 올랐던 최형우는 ‘6회’ 수상을 이뤘다. 월간 MVP 시상식 정례화된 2010 시즌 이후 최다 수상 기록이다.

최형우는 9일 현재 41세 5개월 24일에 수상을 하면서 40세 이상 최초 월간 MVP와 함께 최고령 기록도 경신했다.

앞선 최고령 기록은 2015시즌 NC 이호준이 감독이 기록한 5월 39세 3개월 26일이다.

최형우는 “오랜만에 수상한 월간 MVP라 기분이 좋다. 최다, 최고령 타이틀에 대한 감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꾸준히 출장해 쌓은 기록이라 더 값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나이가 나이인 만큼 관리도 받아야 하고 체력 안배도 해야 하는데, 잘 맞기도 했고 팀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꾸준히 출장했다. 최고참으로 후배 선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고 있고, 우리 팀이 가지고 있던 원래 모습으로 돌아보고 있는 기분이다. 나도 더 힘내서 더 높은 순위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형우는 5월 한 달 타율 0.407, 장타율 0.721, 출루율 0.505를 찍으면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장타율과 출루율을 더한 OPS도 1.226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최형우는 안타(35개) 공동 3위, 타점(23개) 5위도 기록했다.

25경기에 출전해 10번의 멀티히트 계인을 기록한 최형우는 5월 13일 광주 롯데전부터 5월 30일 수원 KT전까지 16경기 연속 안타로 생산했다.

최형우는 기자단 투표 총 35표 중 19표(54.3%), 팬 투표 60만 5631표 중 12만 1124표(20%)를 획득하면서 총점 37.14점으로 MVP가 됐다.

2위는 기자단 투표 3표, 팬 투표 28만 7062표(총점 27.99점)를 얻은 한화 에이스 코디 폰세다.

한편 최형우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된다. 또한 신한은행의 후원을 통해 최형우의 모교인 전주고에 유소년 야구 발전 기금 200만원이 전달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늦게 온 만큼 두 배로 땀 것”

부상에서 돌아온 KIA 이창진

햄스트링 부상 후 시즌 첫 출전

14일 좌완 이의리 ‘복귀 리허설’

“늦게 온 만큼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이창진이 부상을 털어내고 드디어 2025시즌을 연다.

KIA는 10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앞서 엔트리를 교체했다. 지난 8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수비 도중 펜스에 부딪혀 어깨 부상을 입은 김석환이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햄스트링 부상으로 회복한 이창진이 새로 등록됐다.

스프링캠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이창진은 4월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실전을 재개했었지만 통증이 재발하면서 결연을 멈췄다. 6월 4일 삼성과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서 다시 복귀 시동을 건 이창진은 4경기를 소화하면서 실전 준비를 끝냈다.

이창진은 “잘 준비해서 올라왔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통증이 빨리 가라앉지 않았다. 오랜 시간 자리를 비었는데 그만큼 두 배 열심히 땀했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창진은 1군 풀업과 함께 9번 타자 겸 좌익수 역할을 맡았다.

‘섀플’으로 시즌 첫 경기에 나선 이창진은 ‘선의의 경쟁’으로 외야에 힘을 보탤 생각이다. 올 시즌 KIA 외야는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변화가 많은 지점이 됐다.

이창진은 “오랜 시간 쉬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은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 않았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르게 될 수 있다. 긴장감 보다는 섀플이 더 큰



햄스트링 부상에서 벗어나 10일 엔트리에 등록돼 삼성전에서 선발 출격한 이창진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것 같다”며 “기존에 있는 선수들 말고, 올라온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 (오)전수도 좋은 모습 많이보여주고 있다. 많이 성장한 것 같다. 그런 선수가 더 나와야 팀이 성장하는 것이다. 나도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라올 선수들도 자기 몫을 해준다면 충분히 타이거즈가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돌아올 선수도 많고, 우리가 작년 우승팀이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 팀 내에서도 이기고, 팀끼리도 이겨내야 한다”고 ‘경쟁효과’를 통한 KIA의 도약을 기대했다.

한편 이창진에 이어 오는 14일에는 KIA 좌완 이의리가 복귀를 위한 리허설을 갖는다.

이의리는 창원에서 열리는 NC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해 실전을 소화한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강인, 伊적하나

세리에A 챔피언 나폴리와 협상 중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활약하는 이강인(24·사진)이 이탈리아 세리에A 챔피언 나폴리와 이적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이탈리아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이탈리아의 축구 전문 매체 ‘스파치오 나폴리’는 10일 “나폴리가 PSG와 이강인의 영입을 위한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며 “클럽 간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선수 측과의 협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3년 7월 PSG에 입단한 이강인은 데뷔 시즌 공식전 36경기에 출전해 5골(정규리그 23경기 3골 포함)을 넣으며 순조롭게 적응했고, 지난 시즌에는 공식전 45경기를 뛰며 6골(정규리그 30경기 6골)을 터트리고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측면에 주로 배치되던 이강인은 PSG에서 폴스 나인(가짜 9번 공격수) 역할까지 소화하며 전천후 플레이어로 활약했다.

하지만 이강인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벤치만 지켰다.

이강인이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프로필에서 PSG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적설에 힘이 실렸다.

최근 프랑스 스포츠 매체 레퀴프는 지난 2일 “재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조건이라면 PSG 구단은 이강인과 곤살루 하무스의 영입 제안에 열려 있다”고 전하며 이적설을 부추겼다. 이에 대해 스파치오 나폴리는 “이강인과 나폴리 협상의 문제는 초상권”이라며 “이강인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 가운데 한 명으로 엄청난 상품성과 인지도를 자랑한다. 초상권 관련 협상이 해결돼야 할 주요 사안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